

大韓外官科學會誌 : 第14卷 第1號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Vol. 14, No 1, May 2001.

## 약침을 이용한 원형탈모증 치험 1예

윤정훈\* · 김경현\*\* · 장수진\*\* · 신민섭\*\*

### ABSTRACT

#### One case treated alopecia areata with herbal acupunture

Yun Jeong-hun\* · Kim kyong-heon\*\* · Jang Su-jin\*\* · Sin Min-seop\*\*

The etiology of alopecia areata has not been fully elucidated, but autoimmune theory i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increased association of alopecia areata with a number of autoimmune disorders and by the increased prevalence of organ-specific autoantibodies in alopecia areata.

Alopecia areata was called 'Yupung(油風)', 'Quijidu(鬼舐頭)', 'Ballak(髮落)' etc.

We experienced a patient who had been alopecia areata for ten years. He had been treated alopecia areata with herbal acupunture( mixed CF and JsD). almost entire scalp had been replaced with new termal hairs.

---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I. 緒 論

원형탈모증은 하나 또는 두세 개의 원형 또는 난원형의 탈모반이 갑자기 발생<sup>1)</sup>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원형탈모증의 원인은 자가면역설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서양의학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제나 triamcinolone acetonide를 이용한 치료나 각종 면역반응유발물질(diphenylcyclopropenone 또는 dinitrochlorobenzene)로 병변부위에 접촉감작을 일으키는 치료법 등<sup>1-3)</sup>을 사용하고 있다. 한방에서 원형탈모증은 油風, 斑禿 등<sup>4)</sup>으로 불리우며, 약물 치료 및 자락요법에 의존하고 있어 그 치료에 있어 환자의 강한 인내심이 요구될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어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저자는 원형탈모증을 치료하는데 있어 紅花子(CARTHAMI SEMEN)와 胡桃仁(JUGLANCIS SEMEN) 약침을 이용하여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 II. 證 例

환자 : 김 ○ ○, 37세 남자

직업 : 공무원

과거력 및 가족력 : 특이한 사항 없음

주소증 : 원형탈모증

발병일 : 10년전

현병력 : 환자는 10년전 특별한 이유없이 右 後頭髮際 부위에 원형탈모증이 발하여, 피부과 및 약국에서 약물치료 하였으나, 여러곳에 多發하며 별다른 호전이 없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치료 중단하였음. 최근들어 탈모부위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방치료를 위

해 우석대학교부속 전주한방병원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에 來院함.

음주 : 맥주 2병정도 1~2 회/Week

흡연 : 10개피/Day

초진시 소견

탈모상태 : 右 後頭髮際 부위에 지름 3cm 1곳, 지름 1cm 1곳, 左 耳後部에 길이 4.5cm, 폭 1cm 1곳, 頭頂部에 지름 2.5cm 1곳, 右 側頭部에 지름 1cm 1곳, 左 側頭部에 지름 1.5cm 1곳으로 총 6곳에 원형탈모반이 발함.

탈모부위의 피부상태 : 色黃白하고 光亮

혈압 : 100/50 mmHg

대·소변 : 양호

소화상태 : 양호

睡眠 : 양호

양도락 검사상 : 脾胃 實, 三大勝膽 虛

처치내용

약침치료 : CF(紅花子) : JsD(胡桃仁) = 7 : 3의 비율로 혼합한 약침액을 탈모반 부위에 0.05cc씩 3~4處에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주입하였다.

黃連解毒湯(黃芩, 黃連, 黃柏, 梔子 各等分) 약침액을 兩 肩井穴 부위에 각각 0.2cc씩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주입하였다.

CC(녹용) 약침액을 腎俞에 각각 0.1cc씩 6월 24일, 27일 에 걸쳐 총 2회 주입하였다.

한약 : 少陽人 荊防地黃湯 加 生地黃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투약하였다.

(熟地黃 8g, 山茱萸 8g, 茯苓 8g, 澤瀉 4g, 車前子 4g, 羌活 4g, 獨活 4g, 荊芥 4g, 防風 4g, 生地黃 6g)

刺絡術 : 탈모 부위에 6월 16일, 20일, 22일에 걸쳐 총 3회 시술하였다.

진식부항 : 肩背部에 래원시마다 10분간 시술하

었다.

침 치료 : 腎正格(經渠, 復溜 補, 太白, 太谿 瀉)  
광선치료 : 頭部에 적외선광선.

경과 : 탈모반은 右 後頭髮際 지름 3cm 1곳, 지름 1cm 1곳, 左 耳後部 길이 4.5cm, 폭 1cm 1곳, 頭頂部 지름 2.5cm 1곳, 右 側頭部 지름 1cm 1곳, 左 側頭部 지름 1.5cm 1곳 등 총 6곳이었으며, 脫毛處의 피부는 色黃白하고 光亮하며 성모는 물론 솜털도 발견되지 않았다.

6월 16일 : 자락 및 약침시술후 탈모반 부위의 피부색이 黃白色에서 淡紅色으로 변화함.

6월 24일 : 腰痛 發하여 온성어혈(玄胡索, 乳香, 沒藥, 當歸尾) 약침시술.

6월 27일 : 탈모반에 총 4회의 약침시술 후에 左, 右 側頭部 와 頭頂部 에 솜털들이 발견되기 시작됨. 腰痛은 감약되었으며, CC(鹿茸) 약침액을 腎俞에 각각 0.1cc씩 시술.

6월 29일 : 右 後頭髮際 부위를 제외하고는 탈모반의 5곳에서 솜털이 관찰 됨. 腰痛 소실됨.

7월 5일 : 右 後頭髮際 부위에도 솜털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부위의 솜털들은 점차 색이 짙어지며 굵어져 감.

8월 14일 : 탈모반 부위 전체에 고르게 1cm 안팎의 모발이 고르게 자라고 있어, 치료 중단함.

10월 17일 : 전화확인 결과 右 後頭髮際 부위는 모발이 성겨 주변과 약간 차이가 나는 상태이나, 그 외 모든 부위는 정상화되었고, 재발된 부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Ⅲ. 考 察

원형탈모증은 Celsus에 의해 200년전에 명명<sup>1)</sup>된

후에, 수많은 연구에 의하여 그 원인이 국소감염, 내분비계장애, 면역학적 반응, 독소적인자, 혈관계 질병, 유전학적인자, 신경병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수없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가면역질환에 의해 시작되어, 유전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변형되고,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는데는 기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졌다.<sup>10,11)</sup>

원형탈모증은 자각증상 없이 다양한 크기의 원형 내지 타원형의 탈모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두발에 발생하며 드물게 수염, 눈썹이나 속눈썹에도 생길 수 있으며 병소가 확대 혹은 융합하여 큰 탈모반이 형성될 수 있다. 탈모의 정도에 따라서 두발 전체가 빠지면 全頭 탈모증, 전신의 모발이 빠지면 전신 탈모증이라 부른다. 초기 병변에는 경한 홍반과 모낭의 붕괴에 의한 위축이 있을 수 있다. 成毛만 빠지게 되므로 병변을 자세히 관찰하면 솜털을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성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남아있는 성모는 직경이 일정하지 않아 모낭의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확대되는 탈모반의 가장자리의 모발은 쉽게 빠지므로 병변의 경계를 추측할 수 있다. 이때 빠지는 모발은 毛球가 위축되어있고 밀부분이 탈색되어 감탄부호 모발이라 부르며 활동성인 원형탈모증의 매우 특징적인 소견이 된다. 조감병변이 환자의 10-20%에서 나타나며 탈모증이 심할수록 빈도가 높다. 작은 함몰이 많이 나타나며 조반월의 부분적인 소실도 보인다. 백반증은 5%미만에서 동반되며 미만성으로 나타나고 경과가 탈모증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진다.<sup>3)</sup>

원형탈모증의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흔히 재발된다.<sup>3)</sup> 한 개 또는 수개의 작은 병변은 4내지 12개월에 자연회복되는 경우가 많다.<sup>1-2)</sup> 발병한 나이가 어리거나 탈모반이 클수록 예후가 나쁘다. 또한 측두부나 후두부의 변연에 발생하는 蛇行性 頭部脫毛症이 예후가 나쁘다.<sup>1-3)</sup>

임<sup>13)</sup>등은 189명의 원형탈모증 환자를 관찰하여,

남녀의 비는 1.1 : 1 이었으며, 평균발생 연령은 남자 27.5세, 여자 27.8세였고,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7.3%를 차지하며, 탈모반의 평균넓이는 5.5Cm<sup>2</sup> 였고, 10Cm<sup>2</sup> 이하가 전체의 6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탈모반의 발생부위는 후두부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한 부위만을 침범한 경우가 전체의 68.3%였고, 과거력상 재발을 보인 환자는 13.2% 였으며, 치료효과는 성별, 연령별, 탈모반의 수 및 이환기간과의 관계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sup>14)</sup> 등은 357명의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하여 기왕력은 26.1%, 가족력은 10.4%로 조사되었으며, 동반질환은 32.8%에서 발견되었고,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간염, 당뇨, 두드러기, 알레르기 피부질환,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의 빈도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sup>15)</sup> 등은 정신과에 의뢰된 원형탈모증 환자 53명과 남성형 탈모증 환자 86명 정상 대조군 70명을 대상으로 MMPI 및 자아강도를 실시한 결과, 원형탈모증 환자는 남성형 탈모증 환자보다 내향적이고, 우울성향을 보이며, 순종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불안수준이 높았으며, 자아강도는 원형탈모증 환자군이 남성형 탈모증 환자군이나 정상 대조군에 비해 가장 낮은 자아강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한방에서 원형탈모증은 油風, 禿斑 등으로 명명<sup>4)</sup>되며, 그 증상에 대하여 巢<sup>23)</sup>는 “髮脫落 肌肉枯死. 或如錢大 或如指大 髮不生 亦不痒” 陳<sup>24)</sup>은 “毛髮根空脫落成片 皮膚光亮 痒如虫行” 薛<sup>25)</sup>은 “毛髮乾焦脫 皮膚光亮癢難堪 . . . . . (註)此證毛髮乾焦. 成片脫落. 皮膚光亮. 癢如虫行”이라하여 毛髮脫落, 皮紅光亮, 癢感 등이 함께 발생하는 질환이라 하여, 갑작스레 모발의 건조로 痂皮를 형성하여 탈락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모발의 성장과 탈락에 관하여 《素問·上古天真論》<sup>26)</sup>에서 “. . . . .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 . . . . 五八腎氣衰 髮墮齒枯 . . . . .”이라하여 腎氣의

盛衰가 毛髮의 정상적인 榮枯에 가장 중요한 機能을 맡고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油風의 病因을 巢<sup>23)</sup>는 “人有風邪在頭有偏虛處則髮脫落” 陳<sup>24)</sup>은 “血虛不能隨氣營養肌膚 此皆風熱乘虛攻注而然” 薛<sup>25)</sup>은 “由毛孔開張邪風乘虛人以致風盛燥血 不能營養毛髮”이라하여 虛로 因해 風邪가 侵入하여 血運이 不調하므로 毛髮을 不能 滋養하여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이외에 心陰不足, 血虛 함으로 血이 不能毛髮發生하거나, 情志失調로 肝氣鬱結하여, 血熱生風, 血熱上搖 하여 血燥하므로, 病久入絡, 血瘀經脈하여 혈락을 阻滯하여 脾濕이 肺로 熏蒸되어 肺氣가 鬱하여 皮毛를 主管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辨證治療에 있어서 肝腎不足, 血熱生風, 瘀血阻絡으로 분류하고 補肝益腎, 滋養精血法, 清熱涼血, 滋養肝腎法, 活血化瘀, 疏通經絡法, 益氣補血法の 치료를 하고 있다.<sup>16)</sup>

頻用한 處方으로는 神應養眞丹, 通竅活血湯, 防風通聖散, 六味地黃湯, 八珍湯 등이 있으며<sup>16)</sup>, 外治用으로 海艾湯, 禿瘡膏, 潤肌膏, 神應丹등<sup>4,16)</sup>이 있으며, 針灸治療를 살펴보면, 體針으로 百會, 頭維, 風池, 風府, 大椎, 前項, 合谷, 阿是穴 등이 사용되었고, 耳針으로는 神門, 交感, 心, 頭, 皮質下 등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患處에 梅花針으로 피부가 紅色이 되도록 두드리거나 또나 솟를 하고, 灸法으로는 天樞, 大椎, 肺俞, 曲池 등이 穴이 사용되었다.<sup>16)</sup>

약침요법은 經絡學說의 원리에 의거하여 각종 약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製造하여 有關한 穴位, 壓通點 혹은 체표의 촉진으로 얻어진 양성반응점에 주입하여 刺針과 藥物작용을 통하여 生체의 機能을 調整하고 병리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治療하는 新鍼療法의 일종<sup>6)</sup>으로, 저자는 원형탈모증에 기존 한방치료의 전통적인 방법인 자락요법과 약물치료에 병행하여 한방치료에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약침요법을 활용해 보았다. 약침

액은 潤劑중 紅花子 약침액(CF)과 胡桃仁 약침액 (JsD)을 7 : 3의 비율로 혼합하여, 래원시마다 혼합 약침액을 탈모부위에 0.05cc씩 3~4회에 주입 하였다.

紅花子(CARTHAMI SEMEN)는 국화과에 속 하는 잇꽃의 種子로 種子가 성숙한 여름철에 채취 하여, 햇볕에 건조하여 사용한다. 성분은 linoleic acid와 oleic acid의 glyceride가 주성분인 20-30%의 지방유와 serotonin, serotonin conjugate, serotobenin이 밝혀져있다. 性は 溫하고, 味는 甘하다. 心, 脾 2經에 歸經한다. 活血, 解毒의 효능이 있어 瘀血腹痛, 中風, 動脈硬化症에 활용<sup>7,8,12,17,28</sup>하며, 최근에는 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sup>18-22</sup>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胡桃仁(JUGLANS SEMEN)<sup>5,7,9,27</sup>은 가래나무과에 속한 落葉喬木인 호두나무의 種仁으로 10월 果實 成熟時 채취하여, 과실의 겉껍질을 제거하고 햇볕에 건조하여 사용한다. 성분은 단백질 15%, 지방 62.2%, 당분 10.4%, 회분 1.5%(철, 망간, 마그네슘, 인산칼슘), 비타민 A.B.C.E 등을 함유하고 있다. 性は 溫無毒하고, 味는 甘하다. 腎, 肺經에 歸經한다. 滋養, 補腎強精, 潤肌, 黑鬚髮, 鎮咳, 平喘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에서는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하여, 피부는 광량하고 솜털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한방치료방법인 한약물 치료와 자락요법, 침치료 요법에 병행하여 약침요법과 광선요법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임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 參考文獻

1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pp.396-398, 1994.

2 안성구, 이승현; 핵심피부과학, 서울, 고려의학, pp.189-190, 1999.

3 이유신; 임상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pp.228-229, 1989.

4 채병윤; 한방외과, 서울, 고문사, p.285, 1993.

5 신길구; 申氏本草學, 서울, 수문사, pp.63-65, 1998.

6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편저; 침구학(하), 서울, 집문당, p.1457, 1994.

7 김재길; 원색천연약물대사전, 서울, 남산당, p.83, p.368-369, 1992.

8 김창민 외; 완역중약대사전, 서울, 도서출판정담, p.6364. 1998.

9 許俊;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p.713, 1994.

10 Stewart, W.D.; Synopsis of Dermatology. 2nd ed., Saint Louise, Mosby. 1970.

11 Carter DM.; Alopecia areata and Down syndrome, Arch Dermatol 112:1397-1399, 1976.

12 Sato, H., Kawagishi, H., Nishimura, T., Yoneyama, S., Yoshimoto, Y., Sakamura, S., Furusaki, A., Katsuragi, S., Matsumoto, T.; Serotobenine, a novel phenolic amide from safflower seeds(Carthamus tinctorius L.), Agric. Biol. Chem.49(10):2969-2974, 1985.

13 임기섭, 노병인, 장진요; 원형탈모증의 임상적고찰, 한국의과학, 19(1):47-53, 1987.

14 전병화, 김명남, 홍창권, 노병인; 원형탈모증의 임상적 고찰(제v보), 대한피부과학회지36(5):877-886, 1998.

15 이재우, 이종훈, 이영식 등; 원형탈모증 환자의 정신의학적 고찰, 한국의과학25(3):205-211, 1993.

16 金男郁, 盧石善; 油風の病因, 病機 및 治療藥物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外官科學會誌11(1):162-179, 1998.

17 서석수; 홍화의 성분연구(II), 약학연구지 17(1): pp.29-33, 1983.

18 陸泰翰; 紅花子·鹿茸·紫河車 藥鍼이 骨多孔症에 미치는 影響, 경산대학교 대학원, 2000.

19 장수진, 이창현, 육태한; 紫河車·鹿茸·紅花子 藥鍼液이 卵巢摘出로 骨多孔症을 誘導한 흰쥐에 미치는 影響, 대한한의학회지19(1):5-18, 1998.

20 金美麗, 梁在夏, 徐富一; 홍화자가 난소 절제로 유발된 폐경후 골다공증 흰쥐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13(2):37-43, 1999.

21 김준한; 한국산 홍화 종실의 골절치유 및 지질대사개선 효과와 가공식품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8.

22 강준혁. 홍화인의 tyrosine kinase, COX2 및 PGE<sub>2</sub>로 유발된 골재흡수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한원, 2000.

23 巢元方;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62,767, 1983.

24 陳實攻; 外科正宗,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283, 1993.

25 薛瑜; 醫宗金鑑, 台北, 大中國圖書公司, pp.69-70, 1984.

2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靈樞直解, 서울, 성보사, p.4, pp.6-7, 1980.

27 新文豐出版公司; 新編中藥大辭典, 台北, pp.1348-1350, 중화민국 71년.

28 張貴君; 常用中藥鑑定大全,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pp.383-384, 1993.